

日자민, 총선 압승…단독 개헌발의선 넘어 역대최다 의석

다카이치 인기 힘입어 198→316석…단일 정당 처음

최대 야당 '중도' 167→49석 참패…대표 사임 표명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 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 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할 수 있다.

이흘러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우신회도 의석수를 기준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총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요시하고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의 성향 야당 침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키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마리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을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그는 전국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을 호소해 판세를 자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가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1만2000km가 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운을 건 조기 총선 승부수가 성공을 거두면서 중의원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게 됐고, 향후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히는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밀어붙일지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가 훼손처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이번 총선 이후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 침정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의 의석수 합계는 개헌안 발의선을 월 씬 웃도는 395석이 됐다. 이들 정당의 기준 의석수는 261석이었다.

다만 자민당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의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주한러대사 “韓, 러와 협력 없이 북극항로 이용 불가”

“건설적 대화 준비돼”

러시아 내 북극지역의 항해 및 해양 안전 문제도 포함된다며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이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실행하면서 유럽으로 물자를 운송하고 부산항을 국제물류 허브로 만들려는 한국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공개한 서울발 인터뷰에서 한국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이 시작될지는 한국의 북극항로 개발 열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올해 3천TEU급 컨테이너선

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

범 운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북극항로

개척 계획을 공개하면서 상반기 중 러

아당국과 협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